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2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6월 3일 (음력 5월 1일) 월요일

한전공대 '예타 면제' 확실시…2022년 개교 목표 달성 탄력

한전 풍과대학(일명 캠퍼스·Kepco Tech) 설립사업과 같은 '비영리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오면서 2022년 조기 개교 목표 달성을 탄력이 불려 됐다.

2일 한전공대 법정부 설립지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획재정부 질의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 또는 '기간을 단축' 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한전공대 설립사업에도 이 같은 법령해석이 적용될 경우 예타 면제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

법제처 "공기업 비영리 출연사업 예타 대상 아니다" 법령해석

한전 자체 이사회 심의·의결만으로 추진 가능 결론 가능해

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이 초기에 500여 억원을 투자해야 할 한전공대 설립사업도 관련 법률에 따라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하면서 (한전과 같은) 공기업이 출연하는 사업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여부에 대해 무게 중심을 두고 '예타 대상' 유무를 판단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손실 가능성을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수익사업은 공기

업이 자체 이사회를 통한 사전 협의와 심의·의결 절차만 거쳐도 추진

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비영리사업



광주시 이달부터 이상고온 대비 폭염체제

지난달 15일 전국 첫 폭염특보…2008년 도입후 가장 빨라

광주시가 올해 여름 이상고온 현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체제 가동에 본격 들어간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지난 달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이후에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이후 가장 빠른 기록이다.

광주지역 연도별 폭염특보 일 수는 2014년 8일, 2015년 14일, 2016년 31일, 2017년 29일, 2018년 43일로 4년 만에 35일이 증가했다. 이 중 6월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은 2017년 5월 2018년 2월이다.

운열질환자 수도 2014년 19명, 2015년 55명, 2016년 91명, 2017년 72명, 2018년 118명으로 4년 만에 99명이 늘었다.

광주시는 올해 6월에도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폭염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에 달하는 폭염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대응한다.

폭염대책기간(5월20일~9월30일)에는 폭염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무더위 쉼터 지정도 1285곳에서 1500곳으로 확대하고 냉방비 3억원 지원, 5개 자치구 2500명의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운영, 다중 밀집지역 주변도로 살수차 집중 운영 등을 추진한다.

우산형 그늘막 쉼터 150개 설치, 건설·산업 사업장 등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119 폭염 구급대(29대) 등도 배치한다. 더불어 방문활동을 통한 폭염 대응 대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평형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달 후반에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므로 주택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사전 점검하고 장마철에 빈번한 전기감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피서객 맞이 나선 부산 해수욕장 부산 지역 해수욕장 개장 첫 휴일인 2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지난 1일 개장한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92일 동안 운영되며, 광안리·다대포·일광·임령 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운영된다.

으로 추진되는 한전공대의 경우도 한전 자체 이사회 심의·의결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법령해석에 대해 한전과 함께 공대 설립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예타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되고 반대로 면제될 경우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가운데, 예타 면제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그동안 한전공대 설립사업은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해 줄 것을 즐기자며 요청해 왔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한전공대는 지난 1월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 CC(골프장) 일원으로 입지가 확정됐다.

캠퍼스·연구시설·산학연 클러

스터를 포함한 120만㎡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에는 최소 500억원~최대 70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60억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최근 의회 등의를 거쳐 부지매입과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개교 연도인 2022년 3월부터 10년간 매년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억원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발전기금 외에도 662억 원을 들여 공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40만㎡와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 40만㎡를 매입해 원형으로 한전에 무상 제공하게 된다.

한전공대는 오는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도시계획 변경, 2020년 6월 캠퍼스 건축허가·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 시행

교통사고 대처 떨어져…경찰서에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원

광주시는 이달부터 70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체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져 긴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긴밀히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지역 70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3만명, 2017년 3만4400명, 2018년 3만 8800명 등 매년 4000여 명이 증가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5개 경찰서 민원실과 전남면허시험장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광주시는 12월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 카드 1매를 등기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회에 한해 이월해 12월 이후 반납자와 함께 내년 12월에 추첨한다.

송상진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며 "이번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빠트리기 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 MBC 월화드라마 특별극장 김정화 조장 풍 중 >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공공노동자의

둔든한 힘이
되어 드립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공연맹은 이런 일을 합니다.

-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해 정부부처와의 노정협의를 진행합니다. ★★★★☆
- 2019년 노정협의 주요 안건 노동이사회 제도 도입 경영평가제 개선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폐기 등
- 지방정부와의 노사정협의를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 ※ 서울시, 대구시 등 노사정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분 노조들의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지원합니다.
- 2018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존중 지방정부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연맹은 5만 명의 공공부문노동자가 함께 합니다.

국가공공 기관노조	한국농어촌공사노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주택관리공단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 도로교통공단노조 등 30여개
지방공공 기관노조	대구도시공사노조, 인천도시공사노조, 대구도시철도노조, 부산관광공사노조, 부산환경공단노조, 경기도시공사노조 등 50여개
공무직 노조	경찰청주무관노조, 전국통계청노조, 농림축산식품부노조,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충북도청 공무직노조 등 20여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직가입상담

문의 | 02-6277-2280 이메일 | fku00@gmail.com 홈페이지 | www.publicunion.or.kr